

회원사 분리발주 수주현황

(2월 22일 ~ 3월 21일)

실수요기관	공고명	개찰 일시	업체명	대표자	낙찰금액(원)	낙찰률(%)	회원사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보건지소 및 주민 자치센터 증축공사(설비분야)	2.27	유광기계	조기환	40,553,000	87.847	경북
경기도 파주시	백석5리 간이펌프장 증설공사(기계)	3.2	금성설비	임성배	30,809,900	88.060	경기
충청남도교육청	서산성봉중학교 교실증축 기계설비공사	3.2	(주)강남에너지	김범준	19,799,000	87.784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홍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증축 기계설비공사	3.2	금정기전(주)	김연섭	21,963,800	87.748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서산농공고 급식실증축 기계설비공사	3.9	보령도시에너지(주)	홍운길	46,020,600	87.747	충남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신축설비공사	3.9	정우엔지니어링(주)	김실근	159,887,333	87.959	부산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	김해시 북부도서관 신축공사(기계)	3.13	경남엔지니어링(주)	김무영	512,100,930	86.745	경남



건강
상식

빈 페트병에 물 넣어 마시면 세균 마시는 것?

생수나 음료수 페트병은 참 깨끗해 보인다. 그래서 물이나 음료수를 다 마신 뒤 빈 병에 그대로 물을 넣어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 안에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 지도 모르고 말이다.

미국 최대의 방송국인 NBC-TV 취재진이 뉴욕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이던 네 사람이 재사용한 페트병을 모아 실험실에서 세균검사를 해봤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용한 빈 병은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한 것이다.

검사 결과를 보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다. 빈 페트병에 담아 마시는 물은 보통 호수의 물과 수질이 마찬가지로였던 것이다! 식기세척기로 닦아낸 병만 안전한 것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페트병 3개에서는 위험수준의 박테리아가 검출됐다. 무려 4,600마리나 발견됐다. 가게에서 사 마시는

생수 1병에서 검출되는 박테리아는 평균 1마리 미만이다. 박테리아가 단 1마리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또, 공공수영장에서 보통 200마리의 박테리아가 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사용한 페트병에는 얼마나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들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영장 물보다 최고 23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검사를 맡았던 디트로이트의 맥 조지(Frank McGeorge)박사는 페트병 속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가운데는 대장균도 있었다고 밝혔다. 즉, 그 페트병으로 물을 마셨던 사람은 대장균도 함께 먹은 셈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